

교계 문화재 전담부서 설치 시급

불교문화재는 계속해서 발굴되고 있으나 불교계에는 이를 관리보존할 인력이 없다. 불교계 문화재 행정을 총괄하는 총무원 문화재본부에 문화재행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는 1명, 그나마 본 사업 사업을 포함한 8백50여개 전통사찰과 59개 문화재관리요 사찰에서 문화재를 관리하는 인력은 전무해 대부분 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불교문화재 보수와 보존 및 전통불교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담당할 전문연구단체 역시 극소수다. 따라서 연구인력 또한 제대로 수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재 관리에 대한 획기적인 발전전환과 지원은 요원한 일일개.

취 전문요원이 8명 이상 되는 최소한의 기구라도 갖춰야 불교미술정책의 실행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화재 전담부서 설치 및 인력확충은 분명 시급한 문제다. 어느 분야의 몇명의 인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질적인 사전조사작업을 벌이고 이를 토대로 체계화된 조직속에서 가능한 한 충분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때 실질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조계종 총무원의 경우 문화재 담당 실무자는 문화재본부의 1명으로 해서 우리 전통문화의 핵심을 이 문화재행정을 담당하기에는 대부분이다. 따라서 현장 확인과 점검을 독립부서를 설치해 문화재를 보호,

조계종 실무자 1명뿐·사찰엔 전무 상태 연구단체도 부족... 조사·관리 체계화 필요

수백만 불교문화재관리는 업무도 내기 힘든 실정. 이렇다보니 일부에서는 불교계가 문화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이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는 비난 앞에서 속수무책이다. 다가오는 문화재전성시대를 대비하고 미

관리, 재정조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문명대 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소장)는 지난 5월 불교문화발전을 위한 세미나에서 "문화재부서를 문화부로 승격시키 고 여기에 문화학과 문화재과를 나

조계종 문화사회부에서 문화재관리를 전담할 부서로 문화국이 설치된지만 실질적인 고유업무보다는 '사회' 쪽 일에 치중되는 경향이 높다. 또 성보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와 연구를 위해 스님과 재가자 등 문화재전문인 20여명으로 구성된 '성보보존위원회' 구성안이 제시돼 검토중이나 이 역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교계에는 불교문화재 보수와 보존 및 전통불교문화를 연구할 전문 연구단체가 전무한 실정이다. 사진은 지난 4월 김은시지 발굴모습.

현재 불교문화재연구를 목적으로 한 단체는 실질적으로 통도사 성보문화재연구회 단 한 곳 뿐. 전문연구인력은 연구단체가 없다보니 자연히 극소수인 상태이며 교계는 이를 수용할만한 여건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동국대 미술학과에서 해마다 배출되는 불교미술 전공자와 문화재 전공 석·박사가 모두 70여명 정도임을 감안하면 고급

인력들을 불교계에 제대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박도하 연구원(동국대 박물관)은 "전문인력 보강이야말로 성보전시관을 짓는 것보다 더한 급선무이며, 이를 통해 바람직한 불교문화재관

리를 위한 상호보완적인 행정업무 및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고 "중앙과 지방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관심있는 스님을 문화재 전문가로 양성하거나 중앙승가대, 강원 등에 문화재 관련 과목을 확대,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영우 기자

백양사

우화루

江國春風吹不起
(강국춘풍취불기)
鷹鳴鶴唳在深花裏
(양맹학제심화리)
孤城浪高魚化龍
(이급랑고어화룡)
痴人猶負夜塘水
(치인유호야당수)
雨過雲凝曉半開
(우과운응반개)
數蜂如響語崔嵬
(수봉여화벽외)
空生不解寒中唯
(공생불해한중서)
惹得天花動地來
(아득천화동지래)

강쪽 나라 봄바람에 파도 아직 일지 않고
자고새 울음소리 꽃밭 속에 갇혀있나
부처님 법 깨달은 이 높은 파도 타넘어서 용 되는 고기 갈고
어리석고 못난 이는 깊은 밤 연못 속 용 닮으려 하는구나
비 그친 구름 사이 새벽이 반쯤 열려
연이은 봉우리가 그림같이 높푸르구나
부질없이 사는 이는 그 도

한국 사찰의 주련



권영한

리 알지 못해 편히 쉬다 앉았으나
하늘 꽃을 얻을 때는 땅조차 흔들릴세

꽃피 내리는 누각, 절대진리 상징

백양사 우화루는 각종 수련회나 회의를 하는 강당으로 사용되는 누각이다. 대개 사찰의 누각에 이 우화루란 이름이 부여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우화루란 직역하면 '꽃피가 내리는 누각'이란 뜻이다. 여기서 꽃이란 저 유명한 유마거사의 일화에 나오는 절대진리의 표상 바로 그것이다.
아무튼 우화루는 절대 진리의 자리를 찾아가는 곳이란 숨은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백양사 우화루의 주련 내용도 열심히 수행하여 진리를 깨달을 것을 권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대구 덕문불교대 교수)

부다피아 사이트 여행

Pekka Airaksinen
Modern Buddhist music

Pekka Airaksinen has developed a highly unique way of composing music. Although its purpose is to create a clear state of mind, he himself does not necessarily want to call it ambient or meditation music. Airaksinen has done profound work in combining both new and archaic wisdoms with modern sounds of today. In our Sound Gallery you can hear some extracts of his music.

Latest music of Airaksinen can be heard on two CD's - Milk Sea (1994) and Inner Galaxies (1996). Available LP's are Buddhas of Golden Light (1984) and Golden

‘현대불교음악’

인터넷 사용방법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인터넷의 정보력에 매료당하게 하는 것은 월드와이드웹(이하, 웹)이다. 왜냐하면 웹에서는 단순한 문자 뿐만 아니라 그래픽, 음성, 동영상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페카(미국 작곡가·전위예술)의 ‘현대불교음악’ 사이트는 음성서비스 기능을 최대한 활용한 불교관련 사이트. 여기에는 △사운드 갤러리 △작곡 배경 △앨범소개 등의 메뉴가 있다. 이 중에서 사운드 갤러리에는 지난 80년대부터 불교음악을 작곡하기 시작한 페카의 작품 중에서 ‘부처님 탄생’을 비롯 12곡이 음성파일 형식으로 마련되어 있어 네티즌이 언제라도 이 곡들을 감상할 수 있다.

또 페카의 앨범 중에서 현

재 미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Inner Galaxies (1995)와 평화롭고 아름다운 곡들로 구성된 Milk Sea(1994), 신화적 음악을 띄고 있는 Golden Age 등을 감상할 수 있다.

페카는 60년대부터 시즈프스와 같은 신화에서 영감을 얻어 독창적인 음악체계를 이룩한 전위예술가로 널리 세상에 알려진 작곡가. 현재 다르마 센터(미국)에서 명상교육을 받고 있는 페카는 명상을 통해 현대사양음악의 모든 전 자을 향기기에 불교의 참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페카의 ‘현대불교음악’ 사이트는 <http://www.netti.fi/~aryatara/music.html>로 방문하면 된다.

오중욱 기자

“개화기 불교, 사회구제 지향”

儒佛道와 한중일 근대윤리 국제학술대회

동양 전통사상의 중심이 되어왔던 유교 불교 도교 3교가 한·중·일 근현대 윤리에 미친 영향과 미래사회의 새로운 윤리 정립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탐색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한국국립민중학대학(회장 송재운) 주관으로 지난 19일~20일 동국대학교에서 개최된 ‘유교 유신적 경향과 한중일 현대 윤리사상’을 주제로 한 제3회 한중일 국제학술대회가 그것. 이 학술대회는 제1분과 한 중 근대사회의 유교윤리와 도가 사상, 제2분과 불교와 한·중의 근대윤리,



◇송재운회장



◇전보삼 교수

회기 승려의 현실구제 의식과 유신적 경향이 당시의 불교적 사회윤리의 근간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전교수는 개화기시대의 불교사상적 특성을 유교기, 이종인, 김옥균

관계 속에 있어야 하고 시대정신과 역사적식에 투영한 불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 개화기 시대의 불교사상의 중요한 특징이었음을 밝혔다.

“중국 근대불교의 윤리 화와 학술화”를 발표한 중국 강남문화연구원학 인 만원화(萬元和)교수는 거사 양문회(楊文會)로부터 시작한 중국 근대불교의 윤리화와 학술화가 태허대사를 통해 결실을 이루고 있음을 주장했다.

양문회의 각경사업을 통해 제작된 3천여권의 경전이 중국근대불교

중국불교 근대화 태허대사 교리·제도개혁 결실

제3분과 전통윤리사상과 그 변천, 제4분과 미래의 새로운 윤리적 과제로서 진행됐으며 ‘개화기 승려의 현실 구제와 내성 유신적 경향(전보삼)’, ‘중국근대불교윤리학과 학술화(만원화)’ 등 불교관련 논고 발표됐다.

전보삼교수(신구전문대)는 ‘개화기 승려의 현실구제와 내성 유신적 경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개

등의 활동을 통해 설명하면서 이들 개화당의 행동주의를, 조선시대 조 사선의 정신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봉원사 이종인 스님의 활동은 개화당 성립등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전통이 만 해 한용운 스님의 불교유신론으로 이어져 사회참여의 불교와 구세주의의 불교로써 조선불교가 거듭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불교가 현실과 적극적인

의 근간이 되었으며, 태허대사는 교리개혁, 제도개혁, 교산혁명등을 이 론의 핵심으로 삼고 불교운동을 시 작, 중국 근대불교의 윤리화와 학술 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만원화씨는 현재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생활불교, 인간불교 의 바탕이 태허대사의 불교이론으 로부터 기인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은자 기자

무형문화재 ‘공개심사제’ 도입

조사·심사자 분리

몰이를 빚었던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정과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조사와 심의를 분리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등 무형문화재 지정절차 개선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지난 2일 문화재위원회 또는 전문위원들이 무형문화재 보유·후보자를 상대로 조사활동을 벌이고 보유자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도 참여한 지금까지의 절차를 개선해 앞으로는 문화재위원회의 공

신력있는 기구 또는 전문가들이 조사를 실시한 후 문화재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 심의를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공개된 장소에서 심사자를 철저히 분리시킨다고 발표했다.

문화재관리국은 또 무형문화재 예능계의 경우 후보자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실제로 기량을 펼쳐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받도록 하는 공개심사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공예 분야는 현지 제작과정의 비중에 고려 공개심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문화재 단신

독립운동사로 문화재 지정

문화재관리국은 독립운동사료나 독립운동가의 유품 중 백범일지 등과 같은 중요자료를 국가 문화재로 지정보존케 될 전망이다.

공복 51주년을 기하여 문화재관리국은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소(수석연구원 정재우)가 이와 관련한 조사를 실시하여 국가문화재로서의 지정가치가 있는 자료를 선정, 중요문화재로 지정 신청할 계

획이라고 지난 9일 발표했다.

현재 독립운동가의 유품으로서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보물 제568호 윤봉길사의 유품과 보물 제569호, 1084호, 1150호 안중근의사 유품 등이 있다.

용천사 대웅전 도유형문화재

경북 청도군 각북면 오산리 1062 용천사 대웅전이 경북도 유형문화재 제 295호로, 청도읍 원리 981적천사 대웅전은 경북도 문화재자료 제 321호로 6일 각각 지정됐다. 용천사 대웅전은 일란이 후 인조때 건립된 대표적 맞배지붕의 특징을 간직하고 있어 중요 문화재자료 가치가 있다.

관절염, 류마티스

CELL-GUARD(셀가드)

관절염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은 있다.

- 노령에 의한 관절염
- 신경정신 상태로 인한 관절염
- 체중이 무거워서 발생하는 관절염
- 유전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관절염
- 퇴행성 골 관절염
- 류마티스성 관절염
- 통풍성 관절염

등에 대한 효능실험에서 멕시코 국립대학 임상연구결과 80명을 상대로 98% 이상의 완화(시카고 트리뷴지) 등에서 관절염, 관절통(통풍)등 기타 염증으로 인한 통증 및 부종과 유리에 의한 신체조직의 파괴 및 관절염 노화 면역기능 약화에 탁월함을 역설하고 있다.

하루 딱 한번만 복용!!

2달분(정제형) ₩270,000
은행카드 소지자 3-12개월 분할 혜택

미국수입원제품

특수영양식품
국립보건원
자가기준 및 규정
제 893-606호

김진길(56세) 세계참피은 류염우 스승
상기 본인은 셀가드가 관절염·류마티스·통풍에 좋다는 소식을 세계참피은 지도자 조희동(前 세계참피은 박종팔의 스승) 씨 등 많은 권위인들로부터 전해 듣고 관절염과 통풍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좋은 약은 다 먹어 보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해서 2달분을 구입하여 복용을 하기 시작하자 1달 후부터 조금씩 달라지더군요. 그래서 꾸준히 복용하여 6개월이 지나서 완쾌 되었습니다. 지금은 몸이 완전히 나아서 저 처럼 아픈 분들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하여 이 제품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삼 일 양 행
서울 : (代) 790-8200 (휴일도 근무함)
본사 :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108번지

지방에서 주문시 온라인 주문방법
예금주 : (주)한국복지공사
농협 : 094-01-146584
우체국 : 010025-0126305-11
입금후 주소는 전화로 알려주세요(등기,소포우송)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신비의 마이산 탐사 탐영제 방생

한국의 불가사의의 만불탐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심진강 맑은 물의 탐영제 방생 기도

찾아오시는 길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신주 마이산 진안 마이산 탐사

전화 (0655)33-2900, 0303 32-0652, 0072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